

나는 기억할 거야

유은실 동화 | 김유대 그림

※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초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교과:

1학년 1학기 국어 9. 그림일기를 써요

1학년 2학기 국어 10. 겪은 일을 글로 써요

국어과 교육의 성취 기준:

[2국05-03] 여러 가지 말놀이를 통해 말의 재미를 느낀다.

[2국03-04] 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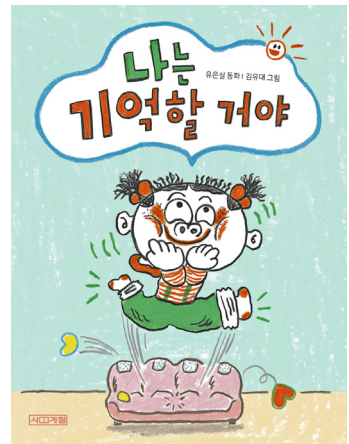
[2국05-04] 자신의 생각이나 겪은 일을 시나 노래, 이야기 등으로 표현한다.

분야: 연작 동화, 단편 동화, 첫읽기책

활용: 말놀이, 끝말잇기, 가족 놀이, 그림일기

주 제 어: #말놀이 #기억 #첫사랑 #가족 #나다움

작성: 창원 북면초등학교 손희선 선생님



■ 학습 목표

- 다양한 말놀이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
- 주인공의 감정을 알고, 비슷한 경험을 찾아 이야기 나눌 수 있다.
- 기억하고 싶은 일을 찾아 그림일기로 표현할 수 있다.

■ 책의 내용

『나도 편식할 거야』, 『나도 예민할 거야』에 이은 유은실 유년동화 ‘정이 이야기’ 세 번째 책!

편식하는 아이, 예민한 아이가 되겠다는 엉뚱한 결심으로 어린이의 속마음을 유쾌하게, 또 진지하게 표현해 주었던 주인공 ‘정이’가 세 번째 책 『나는 기억할 거야』로 돌아왔다.

오빠와의 끝말잇기에 만날 지는 정이는 가족들과 함께 ‘이기고 지는 거 없는 말놀이’를 만든다. 첫사랑에 성공하기를 꿈꾸었는데, 일곱 살 때 헤어진 첫사랑이 자신을 몰라보는 충격적인 일도 겪는다. 재미있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속상해서 ‘인생의 쓴맛’을 알게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그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꼭 품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

순한 아이, 예민한 아이, 착한 아이... 다른 사람의 잣대와 수식어에서 벗어나, 모든 어린이가 가장 ‘나’ 같은 아이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유은실 작가의 진심이 가득 담긴 ‘정이 이야기’ 시리즈. 작가 특유의 간결한 문체와 다정한 시선, 그리고 놀라운 지혜가 가득한 이 작품은 유년동화가 갖추어야 할 미덕이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 교안 작성 의도

『나는 기억할 거야』는 아이의 감정이 다양하게 잘 드러나 있다. <카드뭉치는 너무해>는 오빠와 놀고 싶은 마음, 억울함, 걱정, 미안함, 속상함 등을 느낄 수 있고 <첫사랑은 쓰디써>에서는 그리움, 설렘, 기쁨, 슬픔, 아픔, 좌절 등을 느낄 수 있다. 또래 친구의 감정에 공감하고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볼 수 있는 매력적인 동화이다.

본 교안은 1학년용 대상으로, ‘국어과 1학기 9. 그림일기를 써요’, ‘2학기 겪은 일을 글로 써요’ 단원의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한글이 서툰 1학년임을 고려해 교사가 동화를 직접 읽어 주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8차시로 구성하였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끝말잇기’와 ‘디 말놀이’를 해도 좋고, 가족과 함께하는 말놀이를 소개한 뒤 재미있어 보이는 것을 골라 교실에서 해 볼 수 있다. 말놀이는 한글을 배우고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되므로 가정 연계 활동으로 확장시키는 것도 좋겠다.

주인공 ‘정이’의 감정이 무엇인지 알고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순간이나 비슷한 경험을 찾아본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감정 단어의 의미와 감정을 느끼는 상황을 찾아 보면 더 다양한 생각을 나눌 수 있다.

쓰디쓴 기억이든 다디단 기억이든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소중하게 간직하려는 정이의 모습과 그림일기 쓰기를 연결한다. 그림일기를 쓰는 이유와 방법을 알아보고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일과 그때의 감정을 떠올려 그림일기를 직접 써 본다. 친구의 그림일기를 감상하고 자신이라면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친구와 비슷한 경험은 없는지 서로 이야기 나누며 활동을 마무리한다.

독서 계획

단계	주요 활동	총 10차시
읽기 전	책과 첫 만남 1) 표지 살펴보기 2) '○○○은/는 기억할 거야' 발표하기	1
읽는 중	카드뭴은 너무해 인물과 비슷한 경험 떠올리기 말놀이하기	2
	첫사랑은 쓰디써 감정 단어 살펴보기 쓰디쓴 경험 VS 다디단 경험	3
읽은 후	기억하고 싶은 일 그림일기 쓰기 그림일기 발표하기	4

읽기 전

■ 본격적으로 읽기에 앞서 책과 첫 만남을 가진다. 책 표지, 속표지, 책날개, 차례 등을 살펴본다.

1. 책과 첫 만남

1) 표지 살펴보기

■ 앞표지를 보고 보이는 것이나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 봅시다.

【예시 답변】

여자아이가 행복한 표정으로 폴짝 뛰고 있어요.

소파 위에서 신나게 뛰고 있는 게 부러워요. 우리 집은 소파에서 뛰면 혼나요.

기쁜 일이 생겼나 봐요. 제목에도 '기억할 거야'라고 되어 있어요.

- 여러분은 어떤 때 이 여자아이와 같은 표정을 짓나요?

【예시 답변】

엄마가 치킨 시켜 준다고 했을 때요.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게임 자유 시간을 받았을 때요.

- 제목을 함께 읽어 봅시다. 주인공은 무엇을 기억하고 싶었을까요?

【예시 답변】

가족이랑 놀러가서 놀았던 기억하고 싶을 것 같아요.
 친구랑 물총 싸움 했던 일을 기억하고 싶을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싶은 것 같아요.

선생님께 책 표지를 보여 줄 때는 앞·뒤표지를 펼쳐서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좋지만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면 그 부분을 가리고 보여 줘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가린 부분을 궁금해하며 책을 호기심 있는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뒤표지에 나온 말풍선을 가리고 보여 주길 추천합니다.

- 뒤표지의 두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예시 답변】

서로 마주 보고 있는데 신나 보여요.
 끝말잇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놀이’→‘이정’ 이렇게요.

- ‘이정’ 다음에 올 수 있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예시 답변】 정리 / 정지 / 정성 / 정상 / 정비소

선생님께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아이들과 함께 끝말잇기를 해도 좋습니다. 교실 상황에 맞게 짝꿍, 모둠, 전체로 진행합니다.

2) ‘○○○은(는) 기억할 거야’ 발표하기

- 입학해서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떠올려 본 뒤, 친구들에게 발표해 봅시다.

○○○은(는) 기억할 거야!라고 친구들이 외치면 주인공은 발표한다.

【예시 답변】

놀이동산에 함께 소풍 갔던 것을 기억할 거야! 너무 즐거웠어.

다리를 다쳐서 ●●이가 보건실에 데려다줬던 것을 기억할 거야! 너무 고마웠어.

선생님이 코로나 걸리셔서 못 오셨던 것을 기억할 거야. 너무 보고 싶었다고!

선생님께 아이들이 문장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수준이라면 공책에 쓴 뒤 발표해도 됩니다.

1. <카드뭴은 너무해> 함께 읽기

선생님께 1학년은 책을 읽는 수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교사가 이야기를 읽어 주면서 활동을 진행합니다. 책이 여러 권 있다면 모든 활동을 마친 후 집에서 가족과 함께 읽거나 아침 활동 시간에 아이 혼자서 다시 읽도록 지도해 주세요.

1) 인물과 비슷한 경험 떠올리기

- 가족과 놀이했던 경험을 나눠 봅시다.

【예시 답변】

엄마랑 산책할 때 끝말잇기를 많이 해요. 근데 내가 계속 저서 속상해요.
 동생과 보드게임을 하면 내가 거의 이겨서 기분이 좋아요. 가끔 저 줄 때도 있어요.
 우리 가족은 주말에 보드게임을 자주 해요. 요즘은 ‘도블’을 하는데 친구랑 해 보고 싶어요.
 형이랑 캐치볼을 하는데 못한다고 놀릴 때 형이 미워요.

- 한 번에 끝말잇기를 끝낼 수 있는 나만의 단어가 있나요?

【예시 답변】 나트륨 / 매듭 / 리튬 / 로켓 / 지웃 / 키옥 / 피운 / 기쁨 / 슬픔 / 나뻘 등

- ‘디 말놀이’를 한다면 만들고 싶은 단어와 뜻을 생각해 봅시다.

【예시 답변】

놀이디놀이	놀이를 아주 많이 하는 거요.
책디책	아주 많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것이요.
폰디폰	핸드폰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친구디친구	친구가 엄청 많고 친한 거예요.

2) 말놀이하기

- 이야기 속에 나오는 ‘끝말잇기’와 ‘디 말놀이’ 외에 가족과 함께 하는 말놀이가 있다면 소개해 봅시다.

【예시 답변】

초성 게임	한 명이 ‘ㄱㅅ’라고 말하면 ‘감사’, ‘가시’, ‘고수’라고 말하면 돼요. 저녁 먹고 나서 과일 먹을 때 자주 해요. 요즘은 세 글자에 도전하는 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로 끝나는 말	여행 가면서 자동차 타고 이동할 때 너무 지겨워서 시작했는데, 너무 재미있었던 놀이에요! 예를 들어 ‘시’로 끝나는 말을 찾으면 돼요. ‘지시’, ‘홍시’, ‘다시’처럼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말하면 돼요. 하다 보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도로 표지판이나 간판에 있는 글자를 조합해서 단어를 만들 수 있어요. 뜻을 모른다면 핸드폰으로 단어 뜻을 찾아봐도 재미있어요.

선생님께 가족과 자주 하는 놀이를 조사해서 발표해도 됩니다. 꼭 말놀이가 아니더라도 가족과 함께 하는 재미있는 놀이를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활동을 하면 됩니다.

() 가족이 자주 함께 하는 놀이

놀이 이름

준비물

언제 하나요?

놀이 방법

- 친구들이 발표한 말놀이 중 하나를 함께 해 봅시다.

〈거꾸로 말해요〉

1. 읽고 있는 책 속에 나오거나 아이들 수준에 맞는 단어로 카드를 만듭니다.
(아이들이 직접 단어를 써서 카드를 만들어도 됩니다.)
 2. 카드를 뒤집어 두고 술래가 한 장을 골라 거꾸로 읽습니다.
 3. 단어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친구는 손을 듭니다.
 4. 답을 맞히면 그 사람이 술래가 되어 새 카드를 뽑아 계속 진행합니다.
- tip. 너무 쉽게 답을 맞히는 경우 조금 더 긴 단어나 문장으로 카드를 만들면 됩니다.

〈길게 길게 끝말잇기〉

1. 모둠별로 화이트보드(또는 활동지)를 주고 제한 시간 5분을 줍니다.
 2. 제한 시간 안에 끝말잇기를 하면서 단어를 씁니다.
 3. 가장 많은 단어를 이은 팀이 승리합니다.
- tip. 어려운 단어로 상대방을 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길게 잇는 놀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칠판에 한 명씩 나와 단어를 쓰면서 반 전체로 진행해도 됩니다.

선생님께

-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정해서 하거나 모둠별로 하고 싶은 놀이를 골라서 해도 됩니다. 말놀이 규칙을 정리해서 교실 벽면에 붙여 두고 쉬는 시간 아이들끼리 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재미있었던 말놀이를 골라 가족과 함께 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놀이를 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 봅니다.

2. 〈첫사랑은 쓰디써〉 함께 읽기

1) 감정 단어 살펴보기

- 책 속에 나오는 감정을 나타내는 말을 찾아봅시다.

고민, 의심, 심심, 재미, 긴장, 신난 것, 속상, 무서웠다, 싫어, 아팠다, 억울했다, 화가 났다, 미안했다, 후회, 멋진데, 괜찮다, 감탄, 가슴이 뻥다, 섭섭, 보고 싶다, 기쁘다, 놀란 것, 반가웠다, 슬펐다, 서운, 행복해

선생님께

이 책에는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모든 단어를 찾기는 어려우므로 교사가 정리하여 나눠 주거나, PPT로 준비해 크게 보여 줍니다. 책을 읽기 시작할 때 아이들이 감정 단어를 찾아서 쓸 수 있는 활동지를 줘도 됩니다.

()가 찾은 감정 단어

찾은 단어 중 하나를 골라 내가 그 감정을 느꼈던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 찾은 단어 중 하나를 골라 언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생각하여 발표해 봅시다.

【예시 답변】

엄마가 나랑 동생이랑 놀다가 싸웠는데 동생 편만 들어서 화나고 속상했습니다.

아빠가 요리를 해 주셔서 놀랐습니다.

가족과 함께 놀이를 했는데 신났습니다.

숙제를 안 해서 엄마한테 혼날까 봐 무서웠어요.

- 주인공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경험을 말해 봅시다.

<41쪽> 거기 오하가 산다. “보고 싶어?” 엄마가 물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보고 싶었던 경험이 있나요?

【예시 답변】

저는 유치원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가 보고 싶어요.

하늘나라에 계신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운 적이 있어요.

아빠가 한 달 동안 출장 가셔서 너무 보고 싶었어요.

<50쪽> “서운하네. 우리 정이를 잊어버리다니.”

나는 기억하는데 상대방이 잊어버려서 서운하거나 속상했던 경험이 있나요?

【예시 답변】

엄마가 수영 끝나고 컵라면 사 주신다 했는데 안 사 주셨을 때 속상했어요.

아빠가 생일에 놀이공원 간다고 했으면서 안 가서 화났어요.

친구가 나랑 놀기로 했는데 놀이터에 안 와서 기다렸을 때 서운했어요.

선생님께

모든 감정을 다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책을 읽을 때 아이들이 흥미와 호기심을 많이 느끼는 부분에서 경험을 나눠 봅니다.

2) 쓰디쓴 경험 VS 다디단 경험

- 내가 겪었던 일 중 쓰디쓴 경험과 다디단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쓰디쓴 경험	다디단 경험
그때 나의 기분	

- 위에 적은 경험 중 한 가지를 골라 발표해 봅시다. 발표한 친구의 경험이 쓰디쓴 경험인지 다디단 경험인지 판단해 보고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생각해봅시다.

【예시 답변】

태권도 겨루기 대회에 나가서 일등을 했어요.

- 다디단 경험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감탄했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큰 소리로 싸웠어요.

- 쓰디쓴 경험이에요. 너무 슬프고 무서웠겠어요.

읽은 후 활동

1. 기억하고 싶은 일 그림일기 쓰기

1) 그림일기를 쓰는 이유와 방법 알기

■ 정이는 좋아했던 오하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나요?

- 좋아하는 마음은 행복했으니까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 오랫동안 자신의 기억을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사진을 찍거나 수첩에 적어요.

- 일기를 씁니다.

■ 여러분도 정이처럼 기억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내가 겪은 일과 기분을 그림일기에 쓰면 나중에도 그 일을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습니다.

■ 그림일기를 쓰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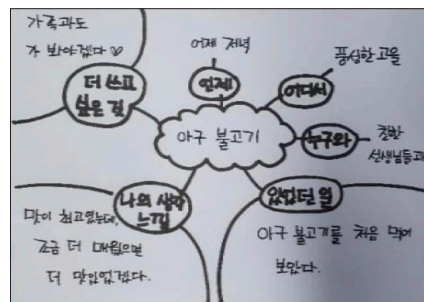
1.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생각합니다.
2. 가장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고릅니다.
3. 날짜, 요일, 날씨를 씁니다.
4. 겪은 일과 당시에 느낀 감정과 생각을 씁니다.
5. 가장 기억하고 싶은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고 제목을 씁니다.

선생님께 그림일기를 쓰기 전에 활동지를 활용해 연습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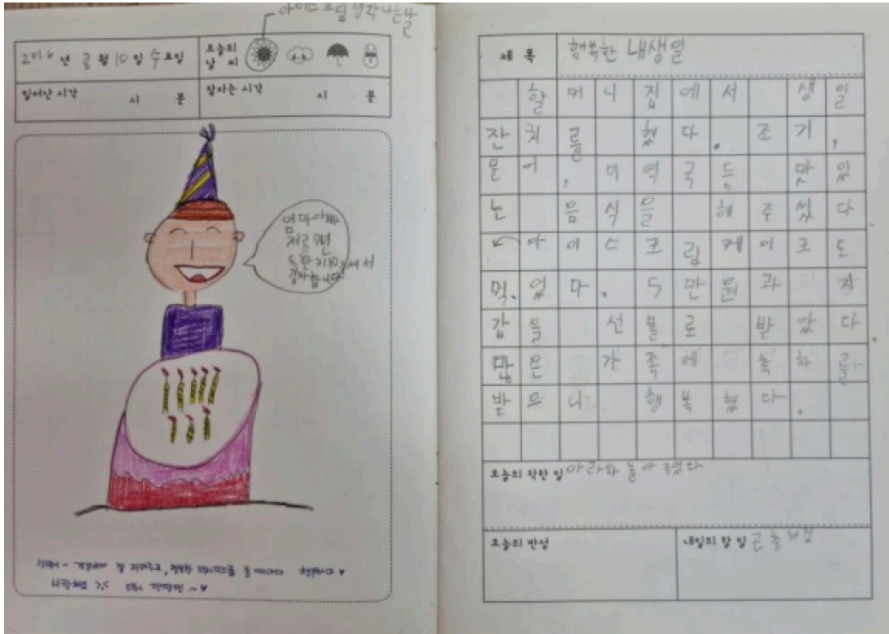
1.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었던 일, 생각과 느낌, 더 쓰고 싶은 것을 씁니다.

2. 쓴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이나 친구, 선생님에게 말하듯이 연습합니다.

tip. 활동지로 연습을 할 때 문장을 끊어서 쓰도록 안내합니다. 문장을 끊지 않고 한 문장으로 일기 전체를 쓰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내가 기억하고 싶은 일을 떠올려 그림일기를 써 봅시다.



선생님께 그림일기 쓸거리를 못 찾는 학생은 함께 말놀이를 했던 일, 가족과 놀이했던 경험, 책을 함께 읽은 것 등 지금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쓰게끔 지도해 주세요.

()의 그림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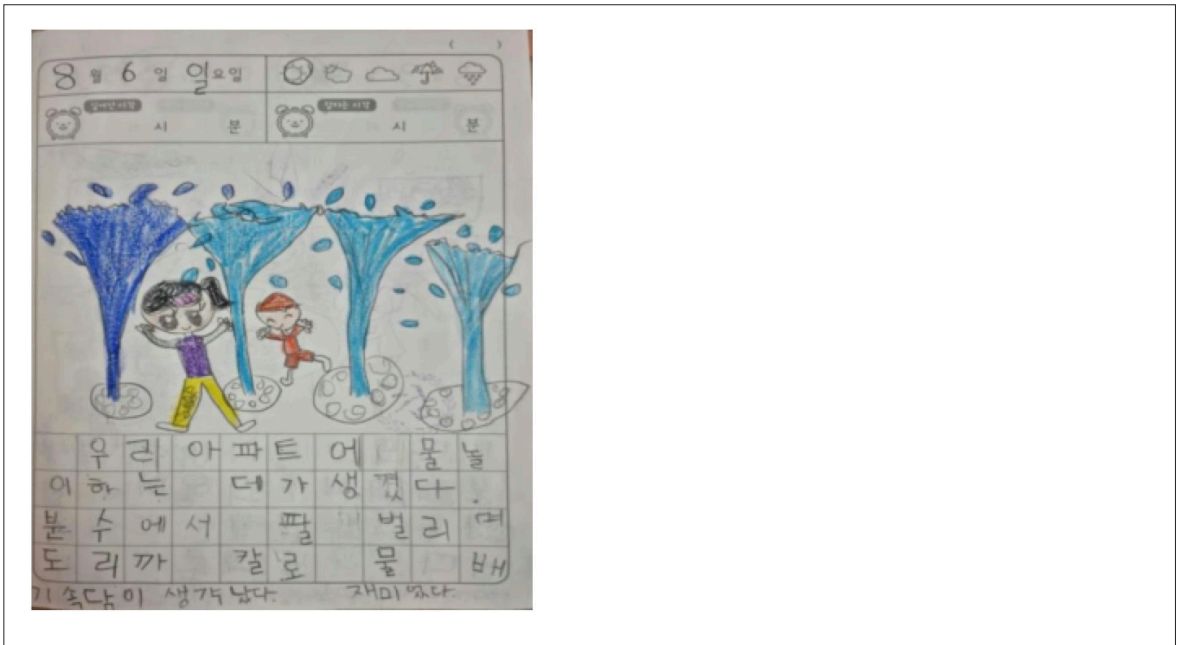
년 월 일 요일

날씨:

제목:

2. 그림일기 발표하기

- 내가 쓴 그림일기를 발표해 봅시다. 친구의 발표를 듣고 비슷한 경험이나 나라면 어땠는지 생각해 봅시다.



【예시 답변】

- 너희 집에 놀러 가고 싶다. 부럽다.
- 예전에 분수대 근처에서 놀다가 미끄러진 적이 있는데 엄청 아프더라. 조심해!
- 나라면 하루 종일 매일매일 분수대에 가서 놀 것이다.

선생님께 발표할 때 실물화상기에 그림일기를 보여 주며 진행하면 좋습니다.

3. 『나는 기억할 거야』를 읽고 가장 기억하고 싶은 것

- 책을 함께 읽고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하고 싶은 것을 말풍선에 쓰고 발표해 봅시다.



【예시 답변】

집에서 가족이랑 말놀이를 하면서 같이 노니까 행복했어요.

그림일기에 기억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쓰고 싶어요.

내가 만든 '친구디친구'라는 말을 친구들이 자주 써서 유행어가 되었어요.

선생님께 말풍선 활동지에 자신이 가장 기억하고 싶은 것을 쓰고 게시판에 붙여 두면 친구들의 생각도 읽어 볼 수 있고, 전시 효과도 있습니다.

- 『나는 기억할 거야』는 '정이'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이'를 보내기 아쉬운 친구들은 유은실 작가님의 『나도 예민할 거야』, 『나도 편식할 거야』 책도 읽어 보길 바랍니다.

